프로폴리스의 신비(神秘)로운 효능

이 학 박 사 박 원 기(가보농산 고문),
한국식품사전 저자, 서울 신광출판사, 2000년7월발행

5. 프로폴리스의 실용화

가. 「프로폴리스」는 부작용이 없는 천연약이며 식품이다.

우리 조상들은 오랜 역사 중 민간약(民間藥)을 이용해 왔으나 대부분이 부작용없이 다른 약과 섞어 이용하여도 별 탈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폴리스」도 그의 한 예로 부작용이 전혀없다. 일반적으로 약은 그 약이 본래 갖고 있는 효력 이외의 작용이 있는 부작용이란 것이 따른다. 이를테면 결핵약에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e:C21H39N9O12)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복용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귀가 들리지 않게 되는 수가 있다. 이 밖에 약에 따라서는 간장(肝臟)에 피해를 주거나 식욕부진, 현기증, 수족의 저림, 관절통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른다.

「프로폴리스」잘 드는 약이라 할지라도 부작용의 걱정으로 복용을 꺼리게 되는 점은 약 본래의 효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와 같은 천연의 식품을 선택한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고서인 동의보감(東醫寶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프로폴리스」의 특성의 하나인 강력한 진통작용(鎭痛作用)은 코카인(cocain)보다 우수하고 코카인과 크게 다른 것은 부작용이 없는 점이다. 그리고 프로폴리스에는 진통작용 이외에도 마취작용(痲醉作用)도 있다하여 유럽이나 러시아에서는 잇몸의 출혈 및 통증, 구강염 등에도 효과가 있으면서 부작용이 없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 해설 → 1) 병이 생겼을 때는 먼저 음식으로 치료해서 낫지 않으면
> 2) 다음에 약을 쓰는 것이다.
> 원문 → 1) 有疾期 先命食以療不愈然
> 2) 後命藥
> 자료참조 ; 박원기, 박복희, 박영희, 한국식품사전 p.539, 신광출판사

나. 「프로폴리스」는 강력한 살균력으로 혈액을 정화한다.

강력한 살균력이 있는 「프로폴리스」의 대체로운 조성은 50%가 수지(樹脂), 30%가 밀랍(蜜蠟, beewax), 10%가 정유(精油)등의 유성(油性)성분, 5%가 화분(花粉), 나머지 5%가 유기물, 무기물이다.

특히 「프로폴리스」의 미량 영양소 중에는 세포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기물이나 비타민(vitamin)류 이외에 식물의 에센스(essence)라 할 수 있는 플라보노이드의 함유율이 극히 높은 점이 특징이다. 이 플라보노이드는 혈액을 정화하여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여 세포의 작용을 활발하게 한다. 그리하여 바이러스(virus)등에 침해받기 어려운 조직을 이루게 된다.

「프로폴리스」의 항균작용은 이 플라보노이드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또 플라보노이드에는 항알레르기(anti-allergy) 작용도 있으며, 진통, 지혈, 소염 등의 작용도 있다는 것을 말게 되었다.

그런데 놀랄만한 것은 「프로폴리스」에 포함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한방(漢方)에서 쓰는 황백(Phellodendron amurense)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황백을 포함한 한방약은 주로 해독, 해열, 소염, 구토나 설사를 방지하는 내복, 외과용의 약으로 쓰이고 있다. 근래 약리학의 연구에 의하면 이 황백의 효용은 플라보노이드의 효능과 유사하여 항균작용, 항염작용도 있다.

다. 「프로폴리스」는 내복용, 외과용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약이라 하면 내복용으로 마시는 약이 아니면 외과용으로 겉 피부에 바르는 약이다. 그런데 「프로폴리스」는 그 어느 경우에도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약 이며 식품이다. 위궤양 이외에 치료나 예방을 위해서 복용한다든가, 암의 초기도 복용하는 외국의 사례가 있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다.

「프로폴리스」를 계속 복용하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프로폴리스」에 포함되어있는 수 많은 유효성분물질(항균성 등)이나 바이러스 등의 증식생장을 억제하는 작용, 조직배양으로 종양의 증식에 대한 억제 효과 등이 있기 때문이라는 외국의 연구보고나 체험사례를 밝히고 있다. 꿀벌의 집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전혀 없는 것은 꿀벌집에 발라있는 「프로폴리스」가 유해한 미생물을 사멸시킨 항생물질적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프로폴리스」는 사람의 체내외에서도 앞서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에는 얼굴에 생긴

사마귀를 없앤 사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라. 얼굴에 생긴 사마귀를 없앤 사례도 있다.

일본에서 있었던 한 사례이다. 사마귀가 아랫입술 밑에 있었다. 이 사마귀는 포자성 피부종양이었다고 한다. 이곳과 그 주변에 하루 1-2번씩 「프로폴리스」를 약 1개월간 바른 결과 사마귀의 뿌리 부분이 가느다랗게 되면서 떨어져 나갔으며 사마귀가 있었던 흔적조차 없어졌다 한다. 그 후에도 염증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한번 파괴된 세포가 원상태로 되돌아오게 촉진하는 작용이 「프로폴리스」의 성분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풀이한다. 따라서「프로폴리스」의 이용범위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두드러기 등의 피부병에는 내복, 외과용을 겸하여 이용하면 보다 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한다.

마. 방사선 치료 후 출혈도 멈추고 궤양도 없어졌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프로폴리스」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의료용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85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30회 국제양봉회의에서 각국의 연구자에 의한 「프로폴리스」연구발표가 있었다.

「프로폴리스」를 관절병 치료로 이용한 보기의 보고로 어깨나 팔꿈치, 무릎의 관절이 좋지 않은 환자에 「프로폴리스」10%를 용해한 밀랍의 반창고를 사용하여 치료하거나, 밀랍을 중탕으로 덥혀 그것을 환부에 바른다. 그러면 그 부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암 방사선 치료 후 「프로폴리스」에 의한 치료의 발표였다. 그것은 56세 되는 여성인데 1974년 11월에 자궁암으로 자궁전부를 들어낸 수술을 하여 그 수술 후 베타트론으로 방사선을 골반 국부에 쪼인 결과 직장과 장이 염증을 일으켜 출혈로 몸이 쇠약해졌다. 그리고 비타민 K나 칼슘등으로 철저한 치료를 하였었으나 항문으로부터 출혈이 멈추지 않고 용태도 좋지 않았다. 수혈이나 지혈치료도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인공항문수술을 하거나 직장을 다시 절제수술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환자가 그 수술을 거부하게 되어 「프로폴리스」를 기용하는 치료를 하게 되었다. 4개월간 하루 3회씩 30%의 에탄올 추출액을 25방울씩 복용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프로폴리스」용액의 양을 하루 2회씩 20방울로 하고, 동시에 벌꿀치료법(로얄젤리, 벌꿀, 화분을 복용)을 한 결과 항문부터의 출혈은 완전히 멈추었고, 감소했던 헤모글로빈의 양도 회복되어 빈혈도 개선되어 전신의 증상도 좋아져 그 1년 후인 1975년 12월에는 점막의 출혈도 없었으며 직장의 Xray 검사로 궤양도 없어졌다고 한다.

이 밖의 임상보고에 있어서도 어느 경우나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치료로 환자의 회복이 빨라졌다는 내용이었다. 「프로폴리스」연고는 외상에 대한 치료에 특효였으며 치료되기 어려운 어린이 습진에도 좋았고, 다른 치료약과 같이 병용하여도 알레르기 증상이나 부작용도 없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바. 「프로폴리스」연고는 화상치료에 특효였다.

헝가리에서는 화상이나 궤양, 류머티즘 등의 치료에 「프로폴리스」를 널리 이용한다고 한다. 「프로폴리스」는 항염증효과, 모세혈관증강효과, 항 세균효과 등에 우수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동물실험(쥐)으로 화상 등의 치료에「프로폴리스」를 사용하였다.

그 실험에서 상처에 포도상균균(동물의 피부나 점막에 존재하는 균으로 종기가 곪아 고름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에 의한 감염증을 저지 또는 지연케함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프로폴리스」연고는 「프로폴리스」3%에 콩기름이나 수분이 없는 버터, 돼지기름(탈수한 생돼지고기의 지방), 꿀벌의 집으로부터 얻은 밀랍을 혼합한 것이라 한다. 그 연고를 화상을 입은 곳에 도포하면 부스럼이 떨어져 상처부위가 낫는다고 한다.

(「프로폴리스」연고에 「키틴, 카로틴」의 성분을 배합하면 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참고자료: 박원기, 박복희, 키틴, 키토산 이야기, P.109, 신광출판사, 1998.9.10 발행)

사. 「프로폴리스」를 첨가한 여드름 치료약, 화장품이 생산되었다.

루마니아에는 국제양봉대학이 있다. 놀랄만한 것은 꿀벌에 관해 연구하는 대학이란 점으로 그 대학의 연구소에서는 화장품 담당자도 있다. 이 곳에서는 많은 여성 연구자가 참여하며 꿀벌에 관한 연구로는 동유럽중에서는 역사가 있는 나라라 할 수 있다.

그 루마니아에서는 일찍이 「프로폴리스」가 들어있는 여드름 치료약이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한다. 그 후 세계여러나라에서도 「프로폴리스」를 배합한 여러 가지 화장품도 연구개발되고 있다. 근세는 세계적으로 자연지향을 바라는 시대로 「프로폴리스」와 같은 부작용이 없고 피부에도 좋은 여러 가지 약효가 있는 민간약을 활용하려는 경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여드름, 피부미용 등 크림이나 비듬, 가려움을 없애는 샴푸에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제품이 많이 시판 중이다. 이 밖에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프로폴리스」를 배합한 화장품이 상품화되고 있다.

이와같이 「프로폴리스」를 배합하여 신소재로 이용한 것은 그의 항균작용 이외에도 피부의 세포에 대한 활성화작용, 항산화작용이 있고, 검버섯, 주근깨, 사마귀 등등 다음호에 계속...